

2017년 4/4분기

기업경기전망 보고서

2017. 9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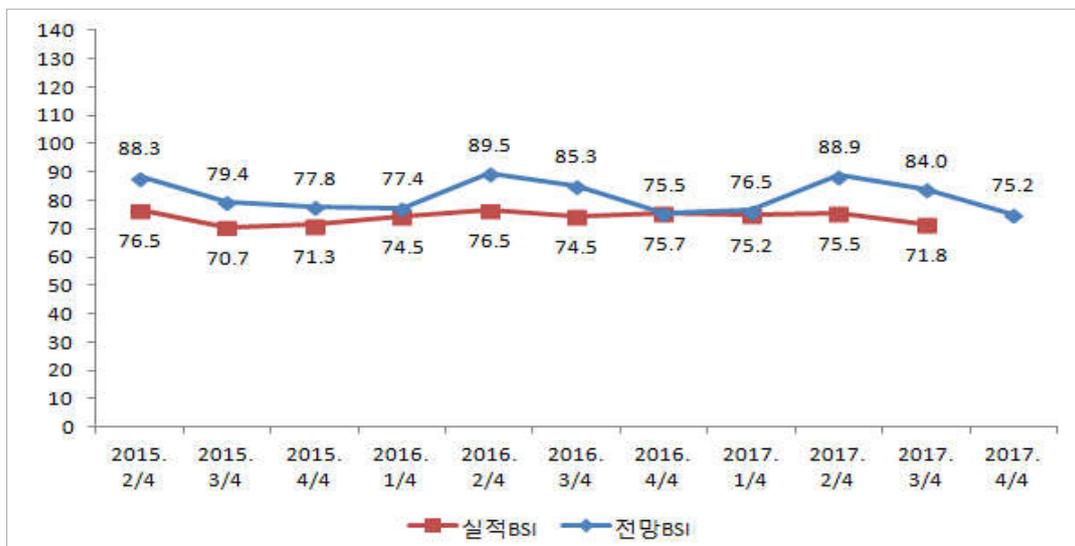
I. 경기전망(BSI)

본 상공회의소 지역 내에 소재하는 1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「2017년 4/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」에 따르면 2017년 4/4분기 기업경기 실적지수(BSI)는 75.2로 최근 4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하여 지역 제조기업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는 비관세 장벽 강화 등 중국의 사드(THAAD) 보복조치로 인한 수출 피해가 전 제조업에 걸쳐 번지고 있는 상황에 지역 주력업종인 자동차업계의 해외 판매부진까지 겹치면서 기업경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.

한편, 3/4분기 BSI 실적치도 71.8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지역 기업이 장기간 실적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.

<경산 · 청도지역 경기전망 B.S.I 추이>



- 1) BSI(Business Survey Index)는 기업들의 현장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~200 사이로 표시되며,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, 100미만이면 그 반대이다.

주요 업종별 4/4분기 전망 BSI는 기계·금속업종이 72.0, 섬유 66.7, 화학·플라스틱 89.5, 기타 업종이 81.8로 나타나 지역 전반에 걸쳐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.

주요 부문별 4/4분기 경기 동향을 살펴보면, 매출액은 내수가 79.6, 수출은 79.5, 영업이익은 내수가 75.5, 수출이 72.6, 자금 조달여건은 72.3으로, 전체 부문에서 기준치(100)를 크게 하회하였다.

<주요 업종별·부문별 B.S.I>

항 목		분 기	2017년 3/4분기 실적	2017년 4/4분기 전망
업 종 별	전 제조업		71.8	75.2
	기계·금속		70.6	72.0
	섬 유		71.4	66.7
	화학·플라스틱		73.7	89.5
	기 타		75.0	81.8
부 문 별	체 감 경 기		71.8	75.2
	매출액(내수)		72.0	79.6
	매출액(수출)		77.5	79.5
	영업이익(내수)		68.7	75.5
	영업이익(수출)		71.6	72.6
	자금 조달여건		70.4	72.3

Ⅱ. 기업경영 핵심변수 및 정책과제

2017년 4/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 응답 업체의 주요 무역 상대국은 중국이 30.8%로 가장 많았으며, 미국 19.2%, 동남아 17.3%, EU 11.5% 등의 순이었다.

또한, 주요 무역 상대국이 중국인 제조업체들의 76.2%가 중국 사드 보복을 체감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, 23.8%는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
이어서, 사드보복 초기(3월)와 비교할 때 “더 악화됐다” 및 “그대로다”라 답한 업체가 각각 47.4%를 차지했으며, 5.2%만이 “나아졌다”로 응답하여 중국의 한한령 완화시기가 불투명 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한편, 주요 무역 상대국이 미국인 제조업체들은 한미 FTA발효이후 5년간 미국으로의 수출환경에 대해 76.9%가 “그대로다”, 23.1%가 “더 나아졌다”라 답하였다.

또한, 지난 상반기와 비교할 때 중소기업지원에 대해 71.4%가 “불변”으로, 18.4%는 “악화됐다”, 10.2%는 “나아졌다”라 응답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의 발굴 및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되었다.

그리고, 규제환경에 대해서는 68.0%가 “불변”으로, 26.0%가 “악화됐다”, 6.0%가 “나아졌다”로 답하여,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졌다. 🇰🇷